

그들이라면...그렇만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최 승 혁†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허 태 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범죄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심리적 과정에 관한 '도덕적-특성 모델'은,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이 그 행위 자체와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가해자의 도덕성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성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기제로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중상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성 특성의 상호작용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망 사건 시나리오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연루 가능성과 범죄의 전형성을 고의성 판단에 더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1과 연구 2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일 때, 가해자의 행위가 가장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나쁜 사람일 때, 두 사람이 연루된 중상해/사망 사건을 여타의 조건에 비해 더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고 지각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결과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행위에 더 큰 고의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사사법판단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성 특성 정보가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사법판단에서 가해자 중심의 정보처리의 한계와 사건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고의성 판단, 도덕적-특성, 범죄의 전형성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60156).

† 교신저자 1: 최승혁,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연구교수,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화도관 608호, E-mail: dawnseye@naver.com

‡ 교신저자 2: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tkhur@korea.ac.kr
본 논문을 읽고 세심한 지적을 해 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놈은 일부러 그랬네.”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어떡 하나”

범죄사건을 접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범죄행위의 고의성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런 고의성 판단은 사회적 귀인과 사법판단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행위 당시 범죄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대한 추론에 의해서? 아니면 그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의해서? 또는 그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 특성에 대한 추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제안되어 왔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은 행위자가 특정 결과를 얼마나 원했는가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얼마나 예상했는가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행위의 고의성이 판단된다고 제안한다(Cushman, 2008; Guglielmo & Malle, 2010; Malle, 2006; Malle & Knobe, 1997; Malle & Nelson, 2003; Monroe & Malle, 2019). 이에 반해,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은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좋거나 나쁜가, 또는 특정 결과를 일으킨 행위자를 얼마나 비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Alicke, 2000; Cova, Lantian, & Boudesseul, 2016; Knobe, 2003; Nadelhoffer, 2006; Ngo et al., 2015; Rogers et al., 2019; Zucchelli et al., 2019). 그러나 행위 이전 행위자의 안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은 개인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 특질, 도덕적 특성 등이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한다(최승혁, 허태균, 2020; Hughes & Trafimow, 2012; Sripada, 2010, 2012; Sripada & Konrath, 2011).

본 연구는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이 행위 당시 고의성 판단의 핵심 요인이라는 ‘도덕적-특성 모델(moral-character model)’(최승혁, 허태균, 2020)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은 도덕적 판단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입증되어 왔다(Haidt, 2001; Landy & Aronson, 1969; Malle, Guglielmo, & Monroe, 2014; Siegel, Crockett, & Dolan, 2017; Ulmann, Pizaro, & Diermeier, 2015; Westra, 2018). 예를 들어, Ulmann 등(2015)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크게 결과론적 윤리(consequentialist ethics),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 및 덕 윤리(virtue ethics)가 있는데, 일반인들의 도덕적 판단은 특히 덕 윤리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을 추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는데, 이러한 추론이 고의성, 통제성, 비난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Siegel 등(2017)도 도덕적 판단에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행위의 내용 및 결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좋은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덕적 특성의 중요성은 최근 고의성 판단 분야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최승혁, 허태균, 2020).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사건,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승혁과 허태균(2020)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 당시의 심적 상태는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고 추론되는 것이 그 본질이고, 특히 범죄행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항상 부정적이므로 이에 사건 가해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행위 당시 행위자의 욕망이나 예견가능성과 같은 심적 요인들은 본질적으로 고의성 판단과 같은 추론의 결과물이다. 또한 행위 결과의 좋음/나쁜 평가나 행위자에 대한 비난 요인들도 형사사건에서의 고

의성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행위 이전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성 요인은 본질적으로 판단 대상이 되는 행위에 선행하는 독립적인 정보로서 고의성 판단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사건의 내용 및 결과 이외에 사건 당사자들의 과거력이나 평소 행실 등에 관한 법률 외적인 정보 또한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도덕적 특성을 추론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최승혁과 허태균(2020)은 ‘세월호 사건’을 주제로 한 설문연구에서, 도덕적 특성 요인이 여타 요인들보다 고의성 판단에 대한 영향력이 월등히 큼을 보고하고 있다(도덕적 특성 요인의 설명력 18.6%).

본 연구는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직접 조작하여, 도덕적 특성과 고의성 판단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고의성 판단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도덕적 특성 간 상호작용 패턴과 그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즉, 최승혁과 허태균(2020)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들 사건의 두 당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 판단은 피해자와의 역동을 통해 제대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양 당사자들의 특성 또한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은 어떻게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불행히도, 이러한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Nadelhoffer(2006)의 연구가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 패턴을 일부 추측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도둑)이 좋은 사람(경찰)을 해했을 때에 좋은 사람(일반 시민)이 나쁜 사람(차량 탈취 시도범)을 해했을 때 보다 더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가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 평가 관점에 입각했기에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 요인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건의 두 당사자 모두 부정적 특성을 갖거나 또는 긍정적 특성을 갖는 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다만, 도덕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경우 모두 사건 당사자들 간 도덕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두 경우 모두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 판단의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덕적 특성 간 상대적 비교’ 관점의 해석처럼, 사건의 양 당사자 모두 나쁜 특성을 갖는 경우와 좋은 특성을 갖는 경우에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유사하리라는 가정은 상식적이지 않다. 즉,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의 발단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데, 나쁜 특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싸우는 상황이 좋은 특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만나 싸우는 상황보다 더 격렬하고 폭력적인 전형적 범죄 상황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 범죄 상황에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고의적으로 해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고 더 쉽게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관점의 예상은 범죄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구들(최승혁, 허태균, 2012; Hoffman, 1981; Jones & Kaplan, 2003; Mazzella & Feingold, 1994; Stawiski, Dykema-Engblade, & Tindale, 2012)과 사법판단에

대한 '이야기 모형(story model)'(Pennington & Hastie, 1986; 1993)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의성 판단에 대한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 1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 중 어떤 관점이 고의성 판단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관점인지 그 상호작용 패턴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1

방 법

참가자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040548-KU-IRB - 14-146 - A- 2). IRB 승인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00대학교에서 수업이 종료되어 수업 담당 교수가 퇴실한 강의실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본 연구에 대한 안내 및 참여를 홍보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연구가 진행되었다.¹⁾ 연구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었고, 본 연구의

1) 본 연구에 참여할 경우의 불이익이나 위험 가능성 및 피해 배상에 대해, IRB의 승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들에게 안내하였다(연구 2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함). “연구대상자는 참가 도중 자유롭게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혹시 설문이 진행되는 도중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경우, 설문을 중단하시고 손을 들어 알려시면 연구자가 심층면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구 종료 후이라도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락주시면, 심리치료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모집된 연구 참가자는 142명(남 67명, 여 74명, 1명 성별 무응답; 연령 $M = 20.22$, $SD = 3.19$)이었다. 본 연구는 2(가해자 도덕적 특성: 좋음 대 나쁨) × 2(피해자 도덕적 특성: 좋음 대 나쁨) 피험자 간 설계로 수행되었다.

측정 및 절차

참가자들은 먼저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조작한 총 네 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시나리오는 두 행위 주체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결과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중상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을 밀어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가해자는 실수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의 조작은 Hughes와 Trafimow(2012) 및 Nadelhoffer(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 사람의 직업, 평소 행실, 및 그 사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판을 다르게 함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묘사한 부분이고, 밑줄 친 부분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각각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나쁘게 묘사한 부분이다. 이 외 시나리오의 내용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본 사건은 서울의 ** 호프집에서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사건의 목격자인 ** 호프집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와 이모씨 두 사람은 모두 일행 없이 혼자 술집에 들어와 카운터 앞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두 사람이 호프집에 들어온 지는 1시간도 채 안됐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취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모씨와 이

모씨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호프집 안에서도 들릴 만큼 밖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간 종업원은 두 사람이 서로 떡살을 움켜잡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김모씨가 이모씨를 밀어 이모씨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모씨는 우측 갈비뼈 2대와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등 약 10주간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38세, 남성)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예의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김모씨는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설립한 모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마친 후,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가게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없는 말로 이간질시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김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이모씨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떡살을 잡은 이모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 편,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5세, 남성)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면서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니는 데 술선수범하는 성실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주로 노인들을 속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예의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나, 매우 이기적이고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이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김모씨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김모씨가 자신을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각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조작점검 문항[가해자 및 피해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1: 매우 좋은 사람 ~ 7: 매우 나쁜 사람)] 및 고의성 판단 문항[가해자가 그러한 결과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1: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다 ~ 7: 매우 의도적이었다)]에 응답하였다.

결과 및 논의

조작점검

각 조건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행위주체에 대한 도덕적 특성의 조작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즉, 가해자의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조건($M = 5.34, SD = 1.13$)은 가해자의 특성을 좋게 조작한 조건($M = 3.68, SD = 1.03$)보다 그 특성을 더 나쁘게 지각하였다($t_{(140)} = 9.166, p < .001, \text{Cohen's } d = 1.54$). 또한, 피해자의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조건($M = 5.22, SD = 1.16$)은 피해자의 특성을 좋게 조작한 조건($M = 3.49, SD = 1.04$)보다 그 특성을 더 나쁘게 지각하였다($t_{(140)} = 9.320, p < .001, \text{Cohen's } d = 1.57$).

고의성 판단

고의성 판단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1 참고). 분석결과, 고의성 판단에 대한 가해자 도덕적 특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F_{(1, 138)} = 0.643, p = .424, \eta_p^2 = .005$), 반면,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있었다($F_{(1, 138)} = 3.172, p = .077, \eta_p^2 = .022$). 즉, 사

표 1. 고의성 판단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영향

	좋은 가해자		나쁜 가해자		주효과		상호작용
	좋은 피해자	나쁜 피해자	좋은 피해자	나쁜 피해자	가해자 도덕적 특성	피해자 도덕적 특성	가해자× 피해자 도덕적특성
참가자(n)	38	34	35	35			
고의성	3.32	3.32	3.09	3.94			
M(SD)	(1.42)	(1.41)	(1.58)	(1.37)		+	+

주. + $p < .10$, * $p < .05$, ** $p < .01$.

건의 피해자가 나쁜 사람일 때에 좋은 사람일 때보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경향성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났다($F_{(1, 138)} = 3.060, p = .082, \eta_p^2 = .022$).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그림 1 참고),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 싸운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건의 가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차이가 없

었지만($F_{(1, 138)} = 0.001, p = .982, \eta_p^2 < .001$), 가해자가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보다 그 역시 나쁜 사람일 때에 더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F_{(1, 138)} = 6.155, p = .014, \eta_p^2 = .043$).

이와 같은 결과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에 사람들은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맥락을 반영하여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어떤 도덕적 특성을 갖는 사람인지, 그들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도덕적 특성 간 상대적 비교’ 관점보다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관점에서의 상호작용 추론이 더 타당함을 시사한다. 즉, 사람들은 사건의 두 당사자 모두 나쁜 특성을 갖는 조건일 때에 여타의 조건에 비해 그 사건의 가해자에게 가장 강한 고의성을 부여했는데, 이는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이 고정관념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고 지각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전형적 범죄 상황에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해하는 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2에서는 먼저, 도덕적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행위자들이 폭력적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 또한 높게 지각될 것이라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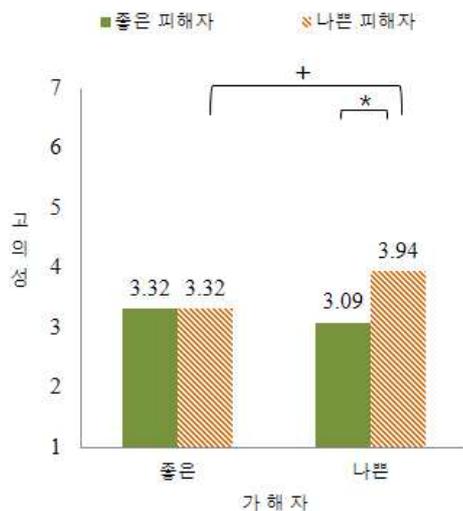


그림 1. 고의성 판단에 대한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

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두 당사자들이 만나 싸우는 폭력적 범죄사건의 맥락에서는 도덕적 특성에 따른 범죄사건의 연관 가능성이 승적으로 결합하여 그러한 범죄 상황이 얼마나 전형적인 가라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범죄사건의 전형성이 높게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욱 더 고의로 해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2

방 법

연구 2는 1차 사전 연구와 2차 본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사전 연구에서는 좋게 또는 나쁘게 묘사된 주인공들 각각에 대한 도덕적 특성 및 범죄 연관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간섭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 하루의 시간이 흐른 뒤 실시된 2차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사사건의 맥락에서 범죄사건의 전형성과 고의성을 판단하게 했다.

참가자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040548-KU-IRB-14-146-A-2). IRB 승인에 따른 본 연구의 참가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00대학교에서 실험 참가 공고문을 보고 실험 참가를 희망하는 연락을 취해 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었고,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모집된 연구 참가자는 156명

(남 65명, 여 90명, 성별 미 응답자 1명)으로, 연령은 평균 22.42세($SD = 2.71$)이었다. 1차 사전 연구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또는 나쁘게 조작한 기술문 네 가지를 제시하고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게 하는 집단 내 설계였다. 2차 본 연구는 2(가해자 도덕적 특성: 좋음 대 나쁨) × 2(피해자 도덕적 특성: 좋음 대 나쁨) 피험자 간 설계로, 연구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측정 및 절차

온라인을 통해 실시된 1차 사전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연구 1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또는 나쁘게 묘사했던 기술문 네 가지를 차례대로 제시받았다. 기술문의 제시 순서는 상쇄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다. 다음 네 가지 기술문 중, 김모씨와 박모씨는 그 도덕적 특성을 좋게 조작한 것이었고, 이모씨와 최모씨는 그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것이었다.

1. 김모씨(38세, 남성)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몇 년 전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고아원을 설립한 후,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평소 그는 주변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다.
2. 이모씨(38세, 남성)는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없는 말로 이간질시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3. 박모씨(35세, 남성)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면서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니는 데 술선수범하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4. 최모씨(35세, 남성)는 주로 노인들을 속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으로, 길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나, 매우 이기적이고 약자 에게 잔인한 사람이다.

각 기술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은 주인공의 도덕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1: 매우 좋은 사람 ~ 7: 매우 나쁜 사람)] 및 주인공의 범죄 연관 가능성을 측정하는 문항[가까운 미래에 주인공의 주위에서 폭력적인 범죄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인공이 이러한 범죄사건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얼마나 연관될 것 같은지 그 가능성에 대한 정도(0% ~ 100%)]에 응답했다.

2차 본 연구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한 회기당 인원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여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1차 사전 연구에서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작하여 제시하였던 기술문을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으로 삽입하여 조작한 총 네 가지 조건의 범죄 시나리오 중 한 조건의 시나리오에 무선 할당되었다. 사건 시나리오는 두 행위 주체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검사측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고의로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조작한 부분이고, 밑줄 친 부분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각각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부분이다. 이 외 시나리오의 내용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본 사건은 서울 외곽의 ** 호프집 주차장에서 김모씨가 휘두른 병 조각에 이모씨가 목을 찔려 과다출혈 및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본 사건의 쟁점은 김모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살해한 것인지, 과실로 죽게 한 것인지에 있다.

사건의 목격자인 호프집 종업원 ** 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와 이모씨 두 사람은 모두 일행 없이 혼자 술집에 들어와 카운터 앞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두 사람이 호프집에 들어온 지는 1시간도 채 안됐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취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모씨와 이모씨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호프집 안에서도 들릴 만큼 밖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간 종업원은 가로등이 없어 흐릿했지만, 주차장 한 켠 빈 술병을 쌓아둔 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깨진 병을 겨누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고, 이에 놀라 급하게 카운터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밖에 나가보니 이모씨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이모씨는 목 부분의 경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38세,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김모씨는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설립한 모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마친 후,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가게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없는 말로 이간질시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 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김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이모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밖으로 나가자 이모씨가 먼저 병을 깨 들고 자신을 위협하여 자신도 방어 차원에서 병을 깨 들게 되었으며, 이 후 갑자기 이모씨가 병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자신은 급하게 뒷걸음치며 도망가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모씨 또한 자기 위로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병 조각에 찔려 죽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모씨가 단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어차원에서 병을 깨 들었을 뿐, 절대 일부러 이모씨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편,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이모씨 (35세,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모씨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면서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니는 데 술선수범하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주로 노인들을 숙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나, 매우 이기적이고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검찰에 의하면, 김모씨와 이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병을 깨 들고 상대를 위협하였다. 또한, 검찰은 호프집 안에서도 들릴 만큼 싸우는 소리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감정이 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깨져서 날카로워진 병 조각은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흉기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모씨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모씨를 죽이려 마음 먹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모씨를 찔러 이모씨가 죽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김모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범죄사건의 전형성 문항[위 사건의 두 당사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위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위와 같은 사건 유형의 특징을 얼마나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 (0% ~ 100%)]과 가해자의 고의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가해자가 피해자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1: 전혀 의

도적이지 않았다 ~ 7: 매우 확실히 의도적이었다)] 및 고의성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1: 의도적으로 죽였다, 2: 의도적이지 않았다고)]에 응답했다.

결과 및 논의

도덕적 특성의 조작점검 및 범죄사건 연관가능성 판단

1차 사전 연구에서 주인공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조작한 조건과 그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조건에서의 도덕적 특성 조작 점검 및 각 조건의 주인공에 대한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주인공 간 도덕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은 도덕적 특성이 나쁘게 묘사된 주인공들(이모씨 $M = 6.04$, $SD = 0.76$; 최모씨 $M = 6.10$, $SD = 0.79$)을 그 특성이 좋게 묘사된 주인공들(김모씨 $M = 1.94$, $SD = 0.84$; 박모씨 $M = 2.25$, $SD = 0.99$)에 비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F_{(2,32, 359,47)} = 1186.81$, $p < .001$, $\eta_p^2 = .884$). 따라서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다음으로, 도덕적 특성이 다르게 조작된 각 주인공들 간 폭력적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참가자들은 도덕적 특성이 나쁘게 묘사된 주인공들(이모씨 $M = 60.41$, $SD = 22.32$; 최모씨 $M = 51.09$, $SD = 22.63$)을 그 특성이 좋게 묘사된 주인공들(김모씨 $M = 26.32$, $SD = 18.59$; 박모씨 $M = 26.86$, $SD = 17.45$)에 비해 더 폭력적인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F_{(2,20, 338,45)} = 207.61$, $p < .001$, $\eta_p^2 = .574$).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

본 연구자들은 각 주인공들의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이 사건 양 당사자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맥락에서는 승적으로 결합하여 곧 그러한 사건의 상황이 얼마나 전형적인가라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나아가 범죄 상황이 전형적이라는 사건에 대한 지각은 그러한 범죄 상황의 가해자라면 고의로 피해자를 가해했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고의성 지각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먼저, 1차 사전 연구에서 좋은 또는 나쁜 특성을 가진 네 주인공들의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을, 2차 본 연구 시나리오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특성으로 조합된 네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총 네 가지의 승적으로 결합된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는 1차 사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김모씨는 좋은 특성을 가진 가해자로, 이모씨는 나쁜 특성을 가진 가해자로, 박모씨는 좋은 특성을 가진 피해자로, 그리고 최모씨는 나쁜 특성을 가진 피해자로, 성

씨만 달리하여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2차 본 연구에서의 좋은 가해자와 좋은 피해자 조건의 범죄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 수치는 1차 사전 연구에서 측정된 김모씨와 박모씨의 범죄 연관 가능성 수치를 곱해서 산출하였고, 좋은 가해자와 나쁜 피해자 조건의 범죄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 수치는 김모씨와 최모씨의 범죄 연관 가능성 수치를 곱해서 산출하였다. 또한, 나쁜 가해자와 좋은 가해자 조건의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 수치는 이모씨와 박모씨의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 수치를 곱해서 산출하였고, 나쁜 가해자와 나쁜 피해자 조건의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 수치는 이모씨와 최모씨의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 수치를 곱해서 산출하였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산출된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 수치가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고).

분석 결과, 가해자 특성의 주효과와 피해자 특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가해자가 나쁜 사람일 때(가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 보다) 더 폭

표 2. 범죄사건 연관가능성, 범죄사건 전형성, 그리고 고의성 판단

	좋은 가해자		나쁜 가해자		주효과		상호작용
	좋은 피해자	나쁜 피해자	좋은 피해자	나쁜 피해자	가해자 도덕적 특성	피해자 도덕적 특성	가해자x 피해자 도덕적특성
참가자(n)	39	39	39	39			
범죄사건 연관가능성 ¹⁾ M(SD)	9.16 (10.65)	16.38 (13.98)	16.85 (12.47)	33.14 (23.32)	***	***	+
범죄사건 전형성 M(SD)	31.95 (24.58)	32.62 (24.93)	32.90 (24.30)	55.38 (23.41)	**	**	**
고의성 M(SD)	3.21 (1.34)	2.72 (1.19)	3.54 (1.29)	3.87 (1.32)	***		*

주. ¹⁾ 나쁜 가해자 및 나쁜 피해자 조건에서 1명은 미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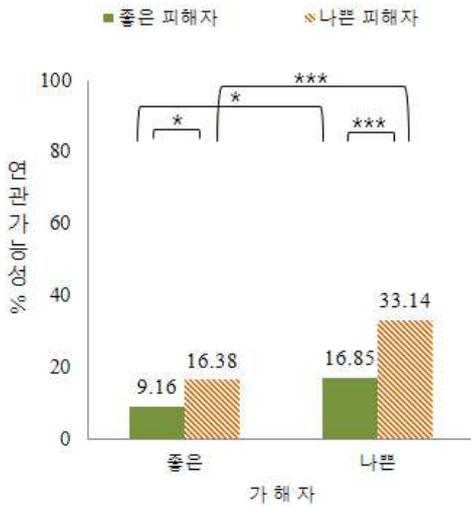


그림 2. 도덕적 특성에 따른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도

력적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F_{(1, 151)} = 23.150, p < .001, \eta_p^2 = .133$), 피해자 또한 나쁜 사람일 때(좋은 사람일 때 보다) 더 폭력적 범죄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F_{(1, 151)} = 21.430, p < .001, \eta_p^2 = .124$).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의 상호작용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났다($F_{(1, 151)} = 3.189, p = .076, \eta_p^2 = .021$).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2참고).

분석 결과, 여타의 조건들에 비해 나쁜 가해자와 나쁜 피해자가 조합된 상황에서 범죄사건 연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건의 가해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 착한 피해자와 조합된 경우보다 나쁜 피해자와 조합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연루 가능성이 높게 추론되었고(좋은 가해자: $F_{(1, 151)} = 4.069, p = .045, \eta_p^2 = .026$; 나쁜 가해자: $F_{(1, 151)} = 20.442, p < .001, \eta_p^2 = .119$), 그 차이의 크기(η_p^2)는 나쁜 가해자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원변량분석하였다(표 2 참고). 분석 결과, 사건의 가해자가 나쁜 사람인 경우에(좋은 사람일 때 보다) 더 그러한 상황이 전형적인 폭력적 범죄 상황이라고 판단했고($F_{(1, 152)} = 9.281, p = .003, \eta_p^2 = .058$), 피해자 또한 좋은 사람인 경우보다 나쁜 사람인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더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1, 152)} = 8.845, p = .003, \eta_p^2 = .055$). 또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_{(1, 152)} = 7.855, p = .006, \eta_p^2 = .049$).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 참고).

분석 결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싸우는 상황이 여타의 상황들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건의 가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에는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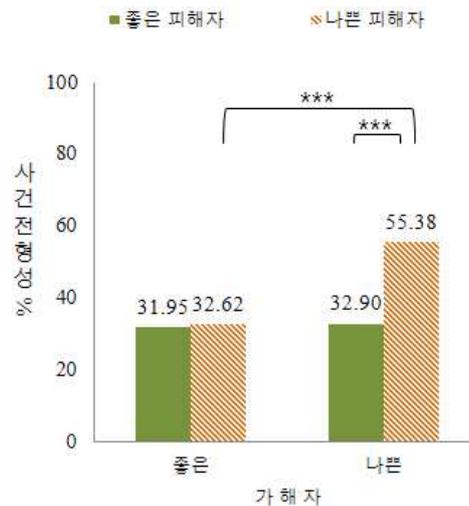


그림 3. 도덕적 특성에 따른 범죄사건의 전형성 판단

각에 차이가 없었다($F_{(1, 152)} = 0.015, p = .904, \eta_p^2 < .001$). 그러나 가해자가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보다 그 역시 나쁜 사람과 조합된 상황이 더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었다($F_{(1, 152)} = 16.685, p < .001, \eta_p^2 = .099$).

고의성 정도의 판단

다음으로, 고의성 정도의 판단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영향을 이원변량분석하였다(표 2 참고). 분석 결과,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F_{(1, 152)} = 0.139, p = .710, \eta_p^2 = .001$), 가해자 도덕적 특성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F_{(1, 152)} = 12.991, p < .001, \eta_p^2 = .079$). 즉, 사람들은 가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보다 나쁜 사람일 때에 더 고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또한,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F_{(1, 152)} = 3.954, p = .049, \eta_p^2 = .025$),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4 참고).

분석 결과, 고의성 정도의 판단에서도 범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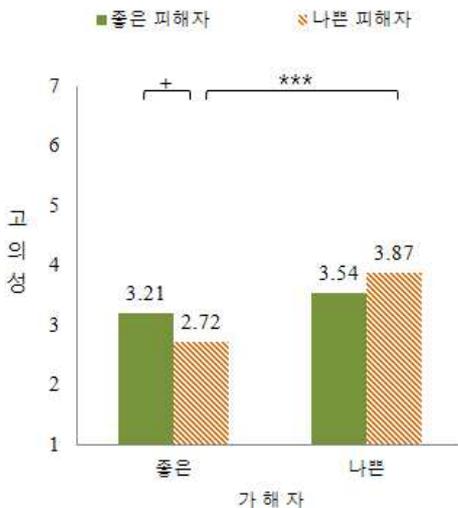


그림 4. 도덕적 특성에 따른 고의성 정도의 판단

건 연관 가능성의 승적 결합도나 범죄사건의 형성 지각 판단처럼 사건의 두 당사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으로 조합된 경우에 그 사건의 가해자에게 가장 강한 고의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가 좋은 사람일 때에는 가해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고의성 판단에 차이가 없었지만($F_{(1, 152)} = 1.305, p = .255, \eta_p^2 = .009$),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고 가해자 또한 나쁜 사람일 때에는(좋은 사람일 때 보다) 가해자가 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가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1, 152)} = 15.640, p < .001, \eta_p^2 = .093$).

고의성 여부의 판단

본 분석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특성의 차이가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결국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판단으로는 어떻게 귀결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영향을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 종속변인인 고의성 여부 판단 변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응답을 참조 집단으로 하였고, 예측변인인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 변인은 각각 도덕적 특성이 좋게 조작된 조건을 참조집단으로 하였다. 1단계 모형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의 주효과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예측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 모형에는 주효과 변인들 간의 곱으로 생성한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본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입력(enter)방법으로 수행되었다(표 3 참고).

분석 결과,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주효과 변인들이 투입된 1단계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X^2_{(2)} = 2.425, p = .297$), 이원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X^2_{(1)} =$

표 3.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	변인들	B	S.E.	Wald	p	Exp(B)	R ²	ΔX ²	X ²
1	(상수)	-1.609	.361	19.848	.000	0.200			
	(A)가해자 도덕적특성	0.611	.397	2.370	.124	1.842	.015	~	2.425
	(B)피해자 도덕적특성	0.000	.391	0.000	1.000	1.000	.024	-	
2	(상수)	-1.204	.380	10.035	.002	0.300			
	A	-0.151	.549	0.075	.784	0.860	.040	~	4.000*
	B	-0.965	.650	2.202	.138	0.381	.062		6.425+
	A * B	1.626	.834	3.803	.051	5.086			

주. +p < .10, *p < .05

4.000, p = .046), 이에 따라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 또한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변화가 나타났다(X²(3) = 6.425, p = .093). 2단계 최종 모형은 고의성 여부 판단의 4.0% ~ 6.2%를 설명하였다.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가해자: B = -0.151, Wald = 0.075, p = .784; 피해자: B = -0.965, Wald = 2.202, p = .138),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났다(B = 1.626, Wald = 3.803, p = .051).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을 좋게 또는 나쁘게 조작한 각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5 참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고의성 정도를 판단하게 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피해자가 좋은 특성을 가진 사람일 때에는 가해자의 특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사했지만, 피해자가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일 때에는 가해자 또한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일 때에(좋은 특성을 가진 사람일 때 보다) 더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응답한 것이었다. 즉, 범죄사건의 연관가능성 및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그리고 고의성 정도를 판단하게 했던 결과와 일관되게,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또는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와 이들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나타난 사건의 전형성 지각,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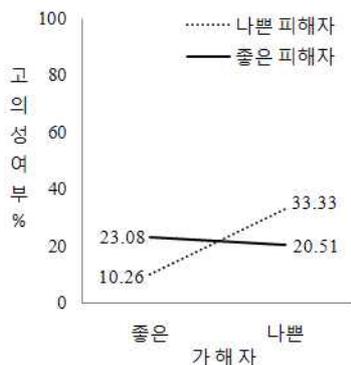


그림 5. 도덕적 특성에 따른 고의성 여부 판단

정도 및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폭력적인 범죄사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지각한 것이었다. 이는 곧, 이렇게 나쁜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형적인 폭력적 범죄 상황에서는 일방이 고의로 상대방을 죽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람들은 추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도덕적 특성 모델’(최승혁, 허태균, 2020)에 입각하여, 고의성 판단에 대한 도덕적 특성의 인과적 역할을 확인하고, 도덕적 특성이 고의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에서는 사건의 가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건의 다른 축인 피해자의 역할은 간과해 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두 당사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사건 양 당사자들의 도덕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즉,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 일방의 도덕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사건의 상대 축인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사건 양 당사자 각각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도덕적 특성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전형적인 범죄자의 특징에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건의 양 당사자 각각

의 도덕적 특성이 전형적인 범죄자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가 실제 양 당사자가 서로 싸우는 폭력적 범죄사건 상황에서는 서로 승적으로 결합하여 그러한 범죄사건 전반에 대한 전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은 사건의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가해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adelhoffer(2006)의 연구를 통해 추론한 ‘도덕적 특성 간 상대적 비교’ 관점보다 범죄의 고정관념 연구들(최승혁, 허태균, 2012; Hoffman, 1981; Jones & Kaplan, 2003; Mazzella & Feingold, 1994; Stawiski, Dykema-Engblade, & Tindale, 2012)과 사법판단에 대한 ‘이야기 모형(story model)’(Pennington & Hastie, 1986; 1993)을 통해 추론한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관점이 더 타당함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의성 판단에 대한 도덕적 특성의 인과적 역할을 밝히는 것을 넘어, 도덕적 특성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사건의 양 당사자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건이 전형적으로 일어날 법한 범죄사건이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촉발시켜 이러한 고정관념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폭력적 범죄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다른 범죄 유형의 판단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여부를 다루기 위해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히 제시되는 피해자의 과거력이나 평판 등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 관련 정보가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나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사건을

구성하는 상황보다 나쁜 가해자와 좋은 피해자가 사건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 상황이라고 지각할 가능성 또한 있다. 반면에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판단에서 여전히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전형적인 범죄 상황으로 지각되는 사건 당사자들의 도덕적 특성 조합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인 경우를 상정하였지만, 똑 같은 폭력적 범죄 사건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때,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일 때 등 사건 당사자들의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판단자의 성별이 어떠한가에 따라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의성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성별 요인은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개연성이 크다(김범준, 2007; 이지혜 등, 2014). 따라서 성별 요인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범죄의 심각성’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결과가 중상해인 연구 1과 그 결과가 사망인 연구 2에서 고의성 판단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구 1과 연구 2에서 사건의 결과를 달리 조작한 것 외에는 시나리오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연구 결과간의 미묘한 차이는 사건 결과의 심각성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범죄 사건의 전형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범죄 심각성의 영향력 및 영향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형

사사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건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김일수, 서보학, 2008; Malle & Nelson, 2003). 또한, 사실인정(fact finding)이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사실적·법률적 증거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사법연수원, 2011), 행위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행위 당시의 사실적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증거수집 및 인정과 관련된 판단은 사법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판단 과정이 추론의 영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더구나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의 고의성을 진실하게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체계 종사자들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이를 추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판단자가 고정관념에 입각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나아가 나쁜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을 더 전형적인 범죄 상황으로 인식하여 더 고의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사법체계의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 수 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가해자를 수사할 때부터 그 가해자가 도덕적으로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고정관념적으로 그 사람이 사건 당시에 고의로 상대를 해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일단 그러한 가설을 형성하고 나면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러한 가설과 반대되는 증거들은 배제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Wason, 1960)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사건 가해자의 공소사실을 작성할 때에도 그 가해자

가 고의로 상대를 해하였다든 추론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그와 관련된 증거를 부각시키게 될 위험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적 증거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에서도 그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법률가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에게 그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정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성, 논리성 및 복잡성 등과 법관의 판단 능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폄하한 주장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물론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에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보다 더 뛰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검찰, 및 법관과 같은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인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적 오류와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재판 제도가 규문주의 시스템에서 당사자주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재판 과정은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부각시켜 법관과 배심원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장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더욱더 확증편향의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확증편향을 포함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지적 오류와 편향의 위험성은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김상준, 2013; 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안영문, 2008; 최대권, 2004; Findley & Scott, 2006; Kassin, Dror, & Kukucka, 2013; Nickerson, 1998).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인지적 편향, 특히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영향력과 기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고의성 판단 과정의 역할을 밝히는 학문적 기여는 물론, 형사사법체계의 의사결정 과정

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최승혁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고의성 판단, 처벌 판단 등 사회적 귀인 및 의사결정 분야와 범죄의 원인 분석 분야에 있다.

허태균은 Northwestern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적 판단과 착각, 사후가정사고와 후회, 문화와 사고과정, 법적 판단, 여가심리 분야에 있다.

참고문헌

- 김상준 (2013).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수, 서보학 (2008).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서울: 박영사.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doi:10.21193/kjssp.2007.21.3.004
- 김청택, 최인철 (2010). 법정 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uci: G704-002133.2010.51.4.008
-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59-84. uci: G704-000654.2005.11.1.003

- 사법연수원 (2011).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경 기도: 사법연수원 출판부.
- 안영문 (2008). 당신이 판사. 부산: 산지니.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0. doi:10.21193/kjspp.2014.28.2.002
- 최대권 (2004). 국민의 사법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5(3), 119-140. uci: G704-002133.2004.45.3.015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13-125. doi:10.21193/kjspp.2012.26.4.008
- 최승혁, 허태균 (2020).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 도덕적 특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1), 25-45. doi:10.20406/kjcs.2020.2.26.1.25
- Alicke, M. D. (2000). Culpable control and the psychology of blame. *Psychological Bulletin*, 126, 556-574. doi:10.1037//0033-2909.126.4.556
- Cova, F., Lantian, A., & Boudesseul, J. (2016). Can the Knobe Effect be explained away? Methodological controversies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ality and mor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10), 1295-1308. doi:10.1177/0146167216656356
- Cushman, F. (2008). Crime and punishment: Distinguishing the roles of causal and intentional analyses in moral judgment. *Cognition*, 108, 353-380. doi:10.1016/j.cognition.2008.03.006
- Findley, K. & Scott, M. (2006). The multiple dimensions of tunnel vision in criminal cases. *Wisconsin Law Review*, 1023, 291-397.
- Guglielmo, S. & Malle, B. F. (2010). Can unintended side effects be intentional? Resolving a controversy over intentionality and mor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1635-1647. doi:10.1177/0146167210386733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doi:10.1037/0033-295X.108.4.814
- Hoffman, E. (1981). Social class correlates or perceived offender typicality. *Psychological Reports*, 49, 347-350. doi:10.2466/pr0.1981.49.2.347
- Hughes, J. S. & Trafimow, D. (2012). Inferences about character and motive influence intentionality attributions about side effec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661-673. DOI:10.1111/j.2044-8309.2011.02031.x
- Jones, C. S. & Kaplan, M. F. (2003). The effects of racially stereotypical crimes on juror decision-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1-13. doi:10.1207/S15324834BASP2501_1
- Kassin, S. M., Dror, I. E., & Kukucka, J. (2013). The forensic confirmation bias: Problems, perspectives, and proposed solution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 Cognition*, 2, 42-52. doi:10.1016/j.jarmac.2013.01.001
- Knobe, J. (2003). Intentional action and side effects in ordinary language. *Analysis*, 63, 190-194. doi:10.1111/1467-8284.00419
- Landy, D. & Aronson, E. (1969).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 of the criminal and his victim on decisions of simulated juro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141-152. doi:10.1016/0022-1031(69)90043-2
- Malle, B. F. (2006). Intentionality, morality, and their relationship in human judgment.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6, 87-112. doi:10.1163/156853706776931358
- Malle, B. F., Guglielmo, S., & Monroe, A. E. (2014). A theory of blame. *Psychological Inquiry*, 25(2), 147-186. doi:10.1080/1047840X.2014.877340

- Malle, B. F. & Konbe, J. (1997). The folk concept of intenti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101-121. doi:10.1006/jesp.1996.1314
- Malle, B. F. & Nelson, S. E. (2003). Judging mens rea: The tension between folk concepts and legal concepts of intentionalit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563-580. doi:10.1002/bsl.554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315-1344. doi:10.1111/j.1559-1816.1994.tb01552.x
- Monroe, A. E. & Malle, B. F. (2019). People systematically update moral judgments of 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2), 215-236. doi:10.1037/pspa0000137
- Nadelhoffer, T. (2006). Bad acts, blameworthy agents, and intentional actions: Some problems for juror impartiali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9*, 203-219. doi:10.1080/13869790600641905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doi:10.1037/1089-2680.2.2.175
- Ngo, L., Kelly, M., Coutlee, C. G., Carter, R. M., Sinnott-Armstrong, W., & Huettel, S. A. (2015). Two distinct moral mechanisms for ascribing and denying intentionality. *Scientific Reports, 5*, 1-11. doi:10.1038/srep17390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42-258. doi:10.1037/0022-3514.51.2.242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In R. Hastie (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pp. 192-221).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gers, R., Alicke, M. D., Taylor, S. G., Rose, D., Davis, T. L., & Bloom, D. (2019). Causal deviance and the ascription of intent and blame. *Philosophical Psychology, 32*(3), 404-427. doi:10.1080/09515089.2018.1564025
- Siegel, J. Z., Crockett, M. J., & Dolan, R. J. (2017). Inference about moral character moderate the impact of consequences on blame and praise. *Cognition, 167*, 201-211. doi:10.1016/j.cognition.2017.05.004
- Sripada, C. (2010). The deep self model and asymmetries in folk judgments about intentional action. *Philosophical Studies, 151*, 159-176. doi:10.1007/s11098-009-9423-5
- Sripada, C. (2012). Mental state attributions and the side-effect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232-238. doi:10.1016/j.jesp.2011.07.008
- Sripada, C. & Konrath, S. (2011).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about intentional action. *Mind & Language, 26*, 353-380. doi:10.1111/j.1468-0017.2011.01421.x
- Stawiski, S., Dykema-Engblade, A., & Tindale, R. S. (2012). The roles of shared stereotypes and shared processing goals on mock jury decision mak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88-97. doi:10.1080/01973533.2011.637467
- Uhlmann, E. R., Pizarro, D. A., & Diermeier, D. (2015).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moral judgmen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1), 72-81. doi:10.1177/1745691614556679
- Wason, P. C. (1960). On the failure to eliminate hypotheses in a conceptual task.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3), 129-140. doi:10.1080/17470216008416717
- Westra, E. (2018). Character and theory of mind: An integrative approach. *Philosophical Studies*,

175, 1217-1241.

doi.org/10.1007/s11098-017-0908-3

Zucchelli, M. M., Starita, F., Bertini, C., Giusberti, F., & Ciarraelli, E. (2019).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d emotion: The Knobe Effect in alexithymia. *Cognition*, 191, 1-9.
doi.org/10.1016/j.cognition.2019.05.015

1 차원고접수 : 2020. 04. 21.

수정원고접수 : 2020. 05. 30.

최종게재결정 : 2020. 05. 30.

**Given who they are... surely they would do:
The roles of moral characteristics and typicality of crime
in judicial judgment of intentionality**

Seung-Hyuk Choi

Inst.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Kwangwoon Univ.

Taekyun Hur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

The moral-character model (Choi & Hur, 2020) in judicial judgment of intentionality proposed that crime agent's moral characteristic would be a core factor regardless of its direct relevance to the crim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model have focused only on the moral characteristic of the crime agents but not on that of the victims. We examined the interactive roles and potential mechanisms - typicality of the crime - of moral characteristics of both the parties on intentionality judgment.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one of four scenarios varied in moral characteristics (positive vs. negative) of both the crime agent and victim and rated how intentional the crime was. In Study 2, participants first rated the probability of criminal involvement for each moral characteristics and then were given the crime scenarios to respond on the typicality and intentionality questionnaire. As a result, participants evaluated the crime more intentionally conducted when both the agent and victim were described morally negative than all the other conditions. Furthermore, probability of criminal involvement and typicality of the crime revealed the same pattern as intention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moral characteristic of the victim as well as that of the crime agent could influence judgment of crime intentionality and typicality, which was discussed in limitations of information processes focused on the crime agent and implications for holistic approaches integrating all factors in crimes.

Keywords: intentionality judgment, moral character, typicality of crime